

# 진딧물 포식자인 *Aphidoletes aphidimyza* (Dipt.: Cecidomyiidae)의 포식행동

정영석, 오인석<sup>1</sup>, 한규홍<sup>1</sup>, 윤영남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sup>1</sup>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식물환경과

혹파리과(Cecidomyiidae)에 속하는 진딧물 포식종인 *Aphidoletes aphidimyza*는 온실에서 시설재배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진딧물의 생물적 방제인자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 aphidimyza*의 행동학적 특성 및 온도에 따른 발육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Aphidoletes aphidimyza* 성충의 산란행동을 보면, 주로 작물의 잎 뒷면에 진딧물이 많이 기생하고 있는 곳에 산란을 하며, 주로 야간에 산란을 하였다. 성충의 수명은 설탕물을 공급하였을 경우, 암컷이 약 10일간 생존하였으며, 수컷은 이보다 짧은 8일정도 생존하였다. 성충의 경우, 진딧물이 분비한 감로를 섭식하며, 설탕물을 공급하여 주면 흡즙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휴식을 취할 때는 거미줄과 같은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유충의 먹이 찾는 행동은 진딧물 감로를 따라 포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활동적이지는 않고 잠깐 머리를 위로 향해 흔들고 바로 먹이를 찾는 탐색 행동을 보였다. 먹이가 없을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서 뭉쳐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복숭아혹진딧물과 목화진딧물을 먹이로 공급하고 각 발육단계별 발육기간을 온도를 달리하여 조사하였다.